

광주 여성발전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

‘남도 진장 명인’ 창평 장흥고씨 10대 종부 기순도씨



광주시여성발전센터(소장 최연주)는 최근 센터 내 대강당에서 여성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114 생활정보기업 코이드, 사랑나눔 성금



114 생활정보기업 코이드(한국인포데이터·대표 노희창)가 지난 16일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koid 사랑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사랑나눔활동에는 강 승(9), 윤연서(여·2세) 어린이가 선정됐으며,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360년된 전통 비법으로 간장 담가요”

“장흥 고씨 문중에서 360년간 전해진 비법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선조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간장인데 어떻게 소홀히 만들겠어요. 손님들이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고려전통식품’의 대표 기순도(여·60)씨는 장흥 고씨 집안 10대 종부로 집안 대대로 전승되던 장류 제조비법을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아 이를 가공해온 기간이 36년에 이른다. 특히 전통 요리법을 지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난 1992년 ‘고려전통식품’ 회사를 설립, 전통적 제조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전통장류의 명맥을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08년엔 진장(陳醬) 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맛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소금 맛이 좌우해요. 발효 음식은 이렇게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순리가 배여 있지, 그래서 약장(藥醬)이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고려전통식품 회사의 마당은 숲속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다. 수백 개의 장독이

맑은 바람을 쐬며 장을 숙성시키고 있다.

기 대표는 “우선 물맛이 좋은 데다, 이곳의 기후가 장 담그기에 알맞고 봄철 숲속에서 날아든 송화가루가 장맛을 더해준다”고 말했다.

기 대표는 남편 고갑석씨와 지난 1972년 결혼한 후 20여년간은 죽업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때만 해도 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 대표의 장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인기가 솟구치면서 결국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발, 사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회사 설립 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996년 제품이 생산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판로를 구축하고 시식·시음회를 통해 그 맛을 인정받아 2002년에는 서울 신세계 백화점을 시작으로 여러 유명 백화점과 명품관에 입점하게 된다.

기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해 올해에는 ‘말기 고추장’ ‘우거지 된장’을 개발,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와 뉴욕 등에 수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장과 된장, 고추장의 맛은 150m 암반수를 끌어올려 좋은 물을 쓰는 것도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씨 문중과 저를 믿고 멀리서 직접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좋은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담양=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의 안마’

영암 삼호은광학교 시각장애우 학생들이 9년째 봉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맑은 미소는 느낄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의 한 시각장애 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영암 삼호읍에 있는 은광학교 고등부 시각 장애우 학생들.

이 학교에는 선천성이거나 질환 등으로 중도 실명한 시각 장애우 80여명이 재학과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이 학교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은 8년 전인 2001년부터 작지만 의미 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년간 인체와 관련된 이론과 실기 등을 익힌 뒤 3학년엔 진학하면 봄부터 직접 안마와 지압 등 봉사활동에 나서서 온다.

매주 목요일이면 지도교사의 안내를 받아 목포시내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안마, 지압, 경락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년째 이뤄진 봉사활동에 동해주민은 물론 소문을 듣고 영암이나 무안지역 주민도 이곳을 찾고 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지만 안마를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 불편한 젊은 사람도 종종 찾아 몸을 맡기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지만 이 봉사활동은 장애 학생들이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의 정신



영암의 시각장애 학교인 은광학교 고등부 학생들이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안마 봉사활동’. 2년간 인체와 관련된 이론과 실기 등을 익힌 뒤 3학년엔 진학하면 봄부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안마와 지압 등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과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극복해 일어난 재활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캄캄한 암흑속에서 점자를 더듬어 읽고 인체모형을 만지면서 엄지손가락이 수백번 부어오르고 굳은살이 박히는 고통을 참고 견뎌왔기에 의미가 더하다.

이모(19·여)양은 “4시간 남짓 안마를 하다보면 땀이 온몸을 적시고 손목 등이 아파오지만 ‘수고했어’라는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했다.

질투으로 중도 실명한 이모(58)씨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 양현아·신자희(왼쪽부터)양이 2009 ‘STOP! 성매매’ 영상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매매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소풍’이라는 주제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서, 두 학생은 교내 영상동아리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빛’(Light)이라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제작·출품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두 학생의 수상작인 ‘빛’(Light)은 지난 15일과 16일 서울 종로3가 프리머스 피카디리 극장에서 열린 ‘제1회 STOP! 성매매 영상제’에서 상영돼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채희정기자 chae@



소외계층에 무료 건강검진·법률상담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상임대표 임내현 전 광주고점장)은 20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등 소외계층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과 진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과 사회적 기업 (사)한누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 남구보건소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광주에덴병원, 조선대 치과병원, 박정열 치과, CJ제약사,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여대 대체요법과·미용과학과, 송원대학 복지상담과,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 마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강희채·손정애씨 막내 성주군 김양식·김점순씨 차녀 유경양=27일(일) 오후 1시 웨딩의 전담 금호 3층 노블레스.

동창·동문회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1일(월) 오후 6시30분 동구 예술의 거리 건너편 화랑회관. 062-223-7340.

▲광주숭일고 21회 정기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무등정식당(쌍촌동 호남대유교) 062-386-9555, 011-647-1345.

▲북성중 제 20회 동창회(회장 박재우) 월례회=22일(화) 오후 7시 북구청 앞 오리명가. 062-262-4488.

▲북성중 제 22회 동창회(회장 김

경범) 월례회=22일(화) 오후 7시 흥부와 놀부. 062-373-3688.

▲광주고등학교 31회 동창회(회장 문재평)=23일(수) 오후 7시 상무지구 진미정극장. 062-655-1910.

▲옥과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추진위원장 김계중)=10월22일(금) 오후 4시 옥과초교 대강당. 011-601-409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혜천 재광 영광군 향우장학회(이사장 이형만) 창립식=25일(금) 오후 6시 북구 동림동 혜천빌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

혼모(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jdongfc.familynet.or.kr/)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의=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등록환자. 두암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토요문화교실 ‘우리나무 바로알기’ 수강생 모집=26일(토) 오전 10~12시 중의공원 일대에서 전통수목과 야생화 현장체험 및 탐구학습, 접수순 마감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

로 참여자 모집=담양겨우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14회 광주 인권영화제 지원활동가 모집=기간(10월~24일까지), 일시(11월19일~22일), 전남대학교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 062-529-7576(www.gjhrff.com)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침술·침·부황,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동구청 보건교육팀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등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광주·전남 생태대극학교 학생모집=9월15일~11월5일(매주 화·목 오후 7시~9시) 광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농업·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Cafe.daum.net/landlovers). 062-373-6183.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 강좌(자연치유력 향상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

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시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뚝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부음

▲이영희씨 별세 유영석(해양원 구개발)·영선(조선대병원)·수미·수진씨 모친상=발인 22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중욱씨 별세 상천·영천·재

임·정미씨 부친상=발인 22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연자씨 별세 김중필·종서·보현·종복씨 모친상=발인 22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5.

▲김용진(전 광주일보 총무)씨 별세 주희씨 부친상=발인 21일(월) 광주병원 장례식장. 010-3602-0169.

▲최재만씨 별세 석필·근필·중호·순정씨 부친상=발인 21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곽성준씨 별세 재구·형구·해수씨 부친상=발인 21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선진국형 주택시스템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가입문의 1566-4499